

□ 古書解題 □

旬 五 志

金 根 洙(前東大教授)

旬五志는 玄默子 洪萬宗 著의 隨筆集으로서 그 自叙에

「戊午(肅宗 4年, 1678 A. D.) 가을에 余는 西湖에서 얹아 누워 있을 때, 낮에는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고, 밤에는 밤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여 등불을 켜 놓고 일어나 앉아, 위로 거리가 없어, 평소에 들어 기억하고 있는 詞家의 雜說과 閭巷의 俚語를 사람을 시켜 베껴 하게 하여 한 冊子를 이루니, 首尾 오직 15日이 걸리었다. 따라서 旬五志라 이름했다. (中略) 越明年春 豊山后人 玄默子 題」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 이 冊名의 由來와
2. 그 內容의 一斑과
3. 그 成立 年代 곧 肅宗 5年(1679 A. D.)에 이 책이 完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栢谷 金得臣의 序에

「우리 東國史乘에서 漏落된 藝苑叢談과 儒仙釋 詞曲家를 섞어 採錄하고 이름난 사람의 別號와 閭里의 方言에 이르기까지 널리 綜合하지 않음이 없이 該博하게 記錄하고, 그리고 한 卷의 滑稽之說이 섞여 있다」고 했고, 또 이어서,

「비록 귀와 눈으로 듣고 본 바를 모았으나, 記錄한 바는 實地 事跡이 아님이 없다」고 하여, 이 책의 자세한 內容과 價値를 밝혀 놓았다.

이 책에는

1. 「世上에 傳하기를 道說이 唐에 들어가 一行에게서 배워 그 神術을 얻었다. 云云」한 說이 그릇됨을 指摘했다. 곧 一行은 唐 中宗 때(648~709 A. D.) 出生했는데 道說이 王隆을 尋訪한 건 唐 僖宗 때(674~888 A. D.)니, 中宗에서 僖宗에 이르기까지 2百餘年이 되는 때문이라 했다.

2. 唐 太宗의 10萬 精兵을 擊退시킨 安市城主가 梁 萬春임을 밝혔다.

3. 東方의 이름난 道學者와 疏.

4. 東方의 道家流의 名單과 그 小傳과 出典

「檀君 이름은 王儉으로 東國史 朝鮮本記, 輿地志, 東史寶鑑 等の 책에 보인다.

赫居世 東國史 新羅本記, 輿地志, 眉叟集 等の 책에

보인다.

東明王 이름 朱蒙, 東國史 高句麗本記, 輿地志 等の 책에 보인다.

述郎, 南郎, 永郎, 安詳 以上은 아울러 新羅의 輿地志에 보인다.

玉寶高 新羅 景德王 때 사람. 輿地志, 東山集 等の 책에 보인다.

金謙孝, 蘇蝦, 大世, 新羅 眞平王 때 사람.

仇峯 大世와 같은 때 사람.

崑(감)始曹 魏 때 사람. 以上은 輿地志에 보인다.

金可記 新羅 사람. 唐 宣宗 때 사람. 中國列仙傳과 事林廣記 等の 책에 보인다.

崔致遠 字 孤雲, 沙梁部 사람, 眉叟集, 東史寶鑑, 筆苑雜記, 頭流錄 等の 책에 보인다.

權眞人 四部稿, 芝峰類說 等の 책에 보인다.

姜邯贊 高麗 顯宗 때 사람. 東國史記에 보인다.

金時習 字 悅卿, 號 梅月堂. 名臣錄, 於于野談, 栗谷集 等の 책에 보인다.

洪裕孫 號 篠叢, 世祖 때 사람. 默庵雜記에 보인다.

鄭鵬 號 新堂, 成宗 때 사람. 清江瑣語, 一善志 等の 책에 보인다.

丁壽崑 成宗 때 사람. 清江瑣語, 丁述先錄 等の 책에 보인다.

鄭希良 字 淳夫 號 虛庵. 牛溪集, 於于野談, 思齋撫言, 名臣錄 等の 책에 보인다.

南越 谷城人, 中宗朝人, 芝峰類說에 보인다.

智異仙人 五山說林에 보임.

徐景德 字는 可久, 號는 花潭으로서 象村集, 四部稿 五山說林, 恥齋集 等の 책에 보인다.

鄭礪 字는 士潔, 號는 北窓으로 中宗 때 사람인데, 本集과 名臣錄 等の 책에 보인다.

鄭礎 字는 古玉으로 北窓의 아우.

鄭礎 號는 桂軒으로 北窓의 從兄.

田禹治 於于野談, 五山說林 等の 책에 보인다.

尹世平 芝峰類說과 清江瑣語 等の 책에 보인다.

漢拏山翁 淸陰南槎錄에 보인다.

南師古 號는 格庵으로 蔚珍 사람. 象村集, 四部稿, 五山說林, 芝峰類說 等の 책에 보인다.

朴枝華 字는 君實, 號는 守庵으로서 於于野談, 霽湖集 等の 책에 보인다.

李之藎 字는 馨伯, 號는 土亭으로 名臣錄과 於于野談 等の 책에 보인다.

寒溪老僧 於于野談에 보인다.

柳亨進, 張漢雄 以上은 四部稿에 보인다.

南海仙人 芝峰類說에 보인다.

蔣 生 四部稿에 보인다.

郭再祐 字는 季綏, 玄風 사람으로 宣祖 때 사람. 名 臣錄, 芝峰類說 等の 책에 보인다.

5. 順道大師, 難陀大師, 阿道和尚, 朗智法師, 普德和尚, 慈藏法師, 良志法師, 元曉法師, 義相法師, 密本法師, 道義國師, 眞表律師, 眞鑒國師, 梵日國師, 哲鑒國師, 無染國師, 道憲國師, 洪陟國師, 普照國師, 慧覺尊者, 麟覺國師, 道誥國師, 無學妙嚴尊者, 懶翁禪師, 達空和尚, 無準禪師, 普愚, 混修, 覺空, 正心, 智嚴, 一禪, 靈觀, 休靜, 志常, 惟政, 洪堅, 彥機, 忠徽, 守初 等 東方의 著名한 佛家의 事蹟.

6. 우리 東人의 지은 歌曲 곧 歷代歌(陳復昌 作), 効善指路歌(曹南溟 作), 冤憤歌(忍齋 洪暹 作), 倪仰亭宋純 作), 關西別曲(岐峰 白光弘 作), 關東別曲(松江 鄭澈 作), 思美人曲(松江, 作) 續美人曲(松江 作), 將進酒(松江 作), 江村別曲(五山 車天輅 作), 怨婦辭(許筠의 妾 作), 流民歎(玄谷 趙韓韓 作), 牧童歌(休窩 任有後 作), 孟嘗君歌(無名 氏 作) 等 우리 東人의 지은 歌曲에 對한 評語.

7. 新羅 末葉부터 李朝까지의 名公 碩儒의 文集과 號, 別號 一覽表.

8. 우리 나라 俗談과 및 그것에 對한 解釋 等 다른 冊子에서는 얻어 볼 수 없는 것도 적지 않고, 高見과 卓說도 많음을 본다.

奎章閣本(現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所藏 寫本)을 調査하건대

每面 10 行, 每行 20 字, 總 87 丁, 30.4×20.6cm, 2 卷 1 冊에 지나지 못하는 小冊子지마는, 그 內容도 內容이거니와, 그 見解의 卓越性 等 에서 凡庸書와는 同日에 論할 수 없다. 더우기 印本이라고는 오직 1 本을 嶺南大學校에서 볼 뿐이지마는, 寫本은 國內 國外에 널리 流布되어 있어 本書가 名著임을 말해 주고 있다.

本書의 著者 洪萬宗은, 그 字는 于海고 號는 玄默子 本貫은 豐山, 벼슬은 僉知中樞에 이르렀다. 그 著書로는 이 旬五志 外에도

◇ ————— ◇
(9面에서 繼續)

解決하여야 할 問題들이 많다.
이와 같은 問題들은 하루 아침에 解決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現在 圖書館界 人士는 勿論 關係 當局이나 國家에서 많은 關心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므로 곧 解決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圖書館 運營 全般에 걸쳐 先進 諸國에 比하여 뒤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先進 諸國과 어깨를 같이 하여 國民文化 向上에 寄與할 밝은 展望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歷代總目……中國 太古 帝堯 元年에서 明 章宗에 이르기까지의 歷代 帝王의 帝都, 在位年數, 改元, 生詩及 陵墓 其他 顯著한 事蹟을 略述한 史書, 寫本.

詩話叢休……1652 年에 엮은, 4 卷 4 冊의 漢詩의 詩話集으로서 東方의 詩大家·名家로 <集>이 있어 世上에 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包括하여 남김이 없다.

小華詩評……高麗 及 李朝의 有名한 漢詩를 品評한 것으로서, 세상에 盛行되어 諳 文士에게 稱賞되었다. 1 卷 1 冊의 寫本.

菴葉志譜……閭里의 瑣語와 村野의 劇談 76 條를 모아 엮어 놓은 우리 나라 說話集으로서 1 卷 1 冊의 寫本 등이 있는데, 어느 거나 名著로 되어 있다는 건 그가 非凡한 學者임을 說明해 주고 있다.

또 그는 博學強記하고 그 때 名流인 金栢谷·鄭東溟 任休窩·洪晚洲 等を 師友로 삼았고. 젊어서 詩를 鄭東溟에게서 배울 적에 東溟이 자주 칭찬했고, 詩를 잘 하는 이로도 有名했던 것이다. 그는 仁祖 21年(1643 A. D.)에 나서 英祖元年(1725 A. D.)에 卒한, 이름난 詩人이요, 學者였던 것이다.

— <附 記> —

순오지에 대해서 汶波文庫(現 嶺南大 도서관 內) 도서관목록(62面)에 의하면, 「旬五志 洪萬宗 著, 2 卷 1 冊, 印本 25.3×17.5cm, 序 金得臣」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정말 <印本> 이라면, 想必 唯一 無二의 <印本 旬五志>라 하겠다. 그러나 筆者가 지난 5월 21일 친히 現地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 그 文庫 所藏 圖書는 정리가 完了되지 못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實物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책 크기가 1959年 7월 20일 文林社 刊 油印本과 같았고 그 油印本 旬五志를 그 文庫 中에서 목격 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前記 <印本> 이란 다른 아닌 文林社 刊 油印本 旬五志 그것이 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 1969. 5. 24. 筆者 追記 —

◇ ————— ◇
(17面에서 繼續)

은 것이라 함은 실로 誤謬이다.』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글이 簡潔한것이 唐人의 글 같지 않다. 姚際恒·王謨의 말이 確實히 옳다. 다만 반드시 太公이나 寇謙의 作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著作時期를 戰國 末葉에 두고 繫辭·老子와 더불어 같은 時代로 보는 것이 옳다. 그 思想은 아마도 이 두 책과 가까운듯 하다.
(次號에 完)